

서학예술마을에 예술광장 들어선다

전주시-전주교대, 조성사업 추진 업무협약... 주민·예술인 전시·공연·여행객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

전주시 서서학동 전주교대 전주부설 초등학교 부지가 마을 주민들의 전시·공연·놀이·휴식을 위한 예술광장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와 전주교육대학교는 10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춘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학예술마을 입구 전주부설초교 부지를 예술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술광장은 서학예술마을 입구이자 전주부설초교의 기존 테니스장 및 녹지공간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와 전주교육대학교는 이 공간을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이 이용 가능한 전시·공연 공간이자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공간, 주민·여행객의 휴식 공간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전주교육대학교는 예술광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전주시는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예술광장이 주민과



전주시와 전주교육대학교는 10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춘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학예술마을 입구 전주부설초교 부지를 예술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서학예술마을 주민

과 방문객, 전주부설초 학생들의 보행 편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성당에서 싸전다리 교차로까지의 보행

자 및 차량의 교통운영체계에 대해 검토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싸전다리 교차로를 기존 오거리에서 사거리 형태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 공사를 예술광장 조성사업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은 이날 "대학과 전주시가 앞으로 해당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많이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 광장,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시민들에게 활력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서학예술마을 주민과 지역예술인, 학교, 행정이 함께 만드는 예술광장은 전주시와 지역 대학의 상생협력 모범사례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향후 이곳에서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과 학교 공동체', '예술과 마을', '아이들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 인재 양성 '맞손'

전주시-전주비전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추진 업무협약

전주시와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재를 함께 양성한다.

시는 10일 전주비전대학교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상모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영식 백제직업전문학교장, 한예현 휴먼평생직업교육학원 대표 등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공모 선정 시 3년간 총 45억 원이 투입된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전주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정주 인재양성 △지자체 및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분야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



전주시는 10일 전주비전대학교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회 주민 및 재직자 등 대상 직업교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 미래전략혁신과 관계자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추진을

통해 대학의 인·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업이 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푸드립)는 10일 전주시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초소양교육의 일환으로써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을 정립을 돕고, 성에 관

한 합리적인 지도 방법을 통해 성적 의사결정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연계해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방해미 전북대 산부인과 임상전담교수, 유승희 전주비전대 학교 간호학교수, 오정례 한국지역사

회 교육협의회 강사가 '성 및 피임교육'을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성적자기결정권 △성적폭력의(의사소통) △월경 △임신 등 성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고, 성폭력 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진행돼 참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줬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청소년의 바른 성 가치관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청소년 스스로 신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유튜브로 만나는 '전주 도서관 여행'

시, 북튜버 김겨울 작가 초청 영상 일기 콘텐츠 제작

전주 곳곳에 있는 이색도서관을 유튜브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디지털 MZ 세대와 온라인 여행자들을 위해 유명 유튜브 채널인 '겨울서점'을 운영자인 김겨울 작가와 함께 전주 도서관 여행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겨울 작가가 직접 전주의 특별한 도서관들을 여행하는 전주 도서관 여행 영상 일기(VLOG)는 이날 유튜브 '겨울서점'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겨울 작가는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과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을 방문해 각각의 도서관이 주는 매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의 경우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북, 팝업북, 사진집 등이 전시돼 있고, 비치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 도서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시집으로만 장서가 구성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는 숲속에서 시를 벗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문학자판기에서 오늘의 문장을 출력해 필사도 해볼 수 있다.

전주 도서관 여행 영상 일기는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으며, 김겨울 작가가 직접 체험한 컬러링 엽서와 사인도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과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을 찾으면 만나볼 수 있다.

시는 향후 디지털 MZ 세대와 온라인 여행자들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전주 도서관 여행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10일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충경로 네거리에서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과 피켓 등을 활용해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운영 △1회용품 줄이기 생활 속 실천 △변경되는 1회용품 규제 관련 안내문 △1회용품 보증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이 1회용품 없는 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이미지 송출,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

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로 인해 4월 1일부터는 식품접착제 포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착제업소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처분 대신 계도와 안내 중심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 원복 디자인 공모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세 살 한복 여든까지'라는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원복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세 살 한복 여든까지'는 만 3세 유아기부터 한복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알리고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전당은 향후 전주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곳을 선

정, 한복으로 만든 원복을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공모전 접수는 만 3세~5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들이 입을 수 있는 한복의 원복 디자인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디자인계획서를 다운받아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전주시에 사업자를 둔 한복 관련 업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